데 스 크

조 상 윤
편집국장

아마추어 vs 프로페셔널

온 세상이 프로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선한 프로와 선하지 않은 프로가 공생하는 게 문제다.

프로는 프로페셔널의 약자로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직업 선수를 일컫는다. 프로에 상대되는 말은 아마추어이다.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로 삼아 즐겨 하는 사람인 셈이다.

스포츠 세계를 벗어나도 프로와 아마추어는 상존한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프로라 부른다. 범죄의 세계에서도 프로와 아마로 나뉜다. 그만큼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프로들이 애를 쓰고 있다. 의약 및 방역 전문가들을 들 수 있다. 어제(25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운동에는 선거 프로들이 전면에 나섰다. 선거캠프나 지지자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인 프로들이 치열한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와 아마를 굳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병폐가 고스란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을 복기(復棋)하기 위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난리다. LH의 설립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 즉 프로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오늘의 번듯한 대한민국이 있게 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일부 프로들이 일탈 또는 잘못된 관행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 흥지구 투기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앞서 수많은 비리나 비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늘 그랬듯이 호들갑을 떨다가 금세 사라지곤 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들이 프로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프로에서 성공하면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된다. 하지만 프로가 된 이후 폭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의 LH사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프로(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마추어들은 그들의 뒤를 이어 공복(公僕)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각오로. 그 각오가 변질되면 안된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프로가 돼야 한다. 실력이 있는 프로가 되지 못하고 아마추어로 남아 있는 뒤처진 공직자들 역시 다시금 분투해야 한다. 위정자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아카데미상 후보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영화 '미나리'에 이런 대사가 있다. 외할머니인 순자(윤여정 분)는 손자에게 "미나리는 이렇게 잡초처럼 어디서든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라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생을 떠올리게 한다. 프로와 아마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프로든 아마든 불공정 경쟁에서 승리를 따내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모든 분야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사설

제주도 전기차 보급, 제대로 추진되나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전기차 보급계획이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주도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서 전기차 보급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됐던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를 6377대(누적 2만9804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20~2030년)에 따른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 1만5378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 대수는 지난해 3만2428대, 올해 4만4244대, 내년 5만9622대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전기차 관련 예산 감소 등으로 이같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보급 대수는 당초 계획보다 1만1142대 적은 2만1285대로 파악됐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난해 8761대에서 3600대 보급에 그쳤다. 올해도 크게 축소됐다. 중장기 계획상 보급 목표 대수였던 1만1817대에서 4292대로 쪼그라들었다.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보급하더라도 3만대가 채 안된다.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7217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부터 시작한 전기차 보급이 내년까지 포함해도 목표치의 7.9%에 불과하다. 남은 8년동안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를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도 시행 첫해(2300만원)에 비해 현재(1250만원)는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제주도가 '탄소없는 섬'을 위한 전기차 보급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된다.

'탐나는전' 품귀… 준비 부족 언제까지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공급부족으로 품귀현상을 빚어 충격이다. 지역화폐가 고사직전의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등장, 소상공인들의 큰 기대를 받아온 터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1월 탐나는전 발행 이후 초기 가맹점 모집과 판매액 부진, 불법환전 에 이은 이번 매진 사태는 제주도 당국의 어설픈 준비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협은행과 제주은행 확인결과 각 지점의 지류형 3종의 판매가 최근 연이은 매진사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8곳 은행 판매점이 지난주부터 5000원권과 1만원권 매진을 보였고, 일부 영업점에서 5만원권이 구입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사태로 판매점 창구가 고객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매진사태는 액면가보다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최근 늘어난 가맹점수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한 장점 때문이다.

도는 최근 가맹점 확대로 인한 수요 급증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 2월 조폐공사에 지류형 150억원어치를 주문할 때만 해도 충분한 잔여물량을 보였다가 수요급증으로 매진됐다는 얘기다. 도가 가맹점 확대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탐나는전 발행 이후 준비부족을 탓할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두달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발행초기 저조한 가맹점 모집과 초라한 판매실적, 불법환전에 의한 돈벌이 수단 악용 사례 등을 겪지 않았던가. 탐나는전은 현 가맹점수가 대상의 70%인 3만2900여곳, 올 판매액도 325억원(발행목표액 500억원)에 이를만큼 두드러진 성장세다. 도는 보다 철저한 준비로 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제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열린마당

코로나 시대 1회용품 줄이기 함께해요

문 정 희
제주시 상하수도과

코로나19로 새로운 비대면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음식이나 음료 포장과 배달이 늘어나면서 종이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편리한다고 사용하는 1회용품들 특히,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분해하는데 50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최근에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5㎜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제조되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물티슈, 종이컵, 섬유유연제, 세제, 티백, 1회용 위생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돼 땅속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미세플라스틱'으로 환경 오염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부메랑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1회용품 갑자기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는 작은 습관이 필요하다. 물티슈보다는 수건이나 행주를 사용하고 외출시엔 손수건을 사용한다. 1회용 컵 대신 텀블러 및 머그컵을 사용한다. 1회용 비닐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우산 비닐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사용하기, 주방에서는 천연소재 수세미 등을 생활화 한다.

최근 음식 등을 포장할 때 집에 있는 용기에 담아가는 캠페인을 본 적이 있다. 용기내 캠페인은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포장 용기 대신 재사용 용기와 에코백에 담아 오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지금은 용기를 꺼내는 용기가 필요할 때이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쉽게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하게 됐을때는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국회 땅부자 박덕흠 의원, 제주 과수원도…

국회의원 재산 변동 공개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도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제주에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면면에 눈길.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박덕흠·장제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제주 부동산을 신고.

국회 최고 땅 부자로 알려진 박 의원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3382㎡(1000평)규모의 과수원을 소유, 장 의원은 대정읍 보성리에 건물, 유 의원은 안덕면 감산리 임야를 재산으로 등록. 부미현기자

맞춤형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

○…제주시가 코로나19로 언택트·온택트 흐름이 보편화됨에 따라 맞춤형 정보교육으로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

시는 내달부터 시민정보화 교육과정을 재개키로 하고 한글과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해 시민간, 또는 읍·면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아트플랫폼 연명 81명 참여

○…제주 문화예술인 20여 명이 지난 22일 제주도의회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관련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성급한 반대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후 이들을 포함 총 81명이 연명.

25일 공개한 연명자는 문학인 24, 무대공연예술 16, 영화인 10, 음악인 6, 기획 9, 미술 12, 기타 문화일반 4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문화예술인들은 "짧은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지지했다"며 "도민과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모을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 진선희기자

부 고

김선춘(변리사) 어머니 **전주이씨 성연(유인·향년 89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25일 11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3월 26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3월 27일(토요일) 오전 11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한경면 가족묘

아 들 김선춘 며느리 김미정
수병 강양순
딸 김일춘 사 위 문창준
정순 문영호

※ 연락처 : 김선춘 010-5391-1096
김수병 010-5693-4014
김일춘 010-8662-6670

부 고

고승훈(前 한림공고 교장) 어머니 **김해김씨 의순(향년 96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25일 04시 14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3월 28일(일요일)
▶발 인 일: 2021년 3월 29일(월요일)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301호 분향실
▶장 지: 광령리 선영

아 들 고승훈 며느리 이인희
손 자 고행언 손 부 허영하
행옥 박미정
손 녀 고기순 손 서 이경부

※ 연락처 : 고승훈 010-3698-7766
이인희 010-5181-0506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 성 명 : 망 백무식(1954. 11. 9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월성로4길 39, 302호 (용담이동, 한솔아트빌)

상기자는 2021년 1월 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3월 17일 제주지방법원 2021느단12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월성로4길 39, 302호 (용담이동, 한솔아트빌)

2021년 3월 26 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이 용 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신천강씨 춘자(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26일

아 들 김원식 며느리 고영희
형훈 김현정
딸 김연주 사 위 문성돈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승우(향년 7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26일

부 인 김춘자
아 들 이충헌 며느리 고재정
용헌 강혜경
정헌
성헌 이경선
태헌
딸 이경희 사 위 오완용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밀양박공 병윤(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26일

배우자 백학순
장 손 박재구 며느리 백희순
아 들 박중수 고인희
남수 김미옥
딸 박경자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